

익산국토청,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 수립

21일부터 6일 동안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 비상근무 체제 21일 오전에는 여산휴게소에서 유관기관과 캠페인 전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김철홍)이 추석연휴동안 지역을 찾는 방문객들을 위해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수립·시행한다.

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21일부터 28일까지 6일 동안을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한다.

익산국토청은 이 기간동안 도로교통

정보센터 ☎ 063-837-1184)를 통해 국도 및 인근 고속도로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스마트폰 무료 앱 통합교통정보)하고, 국도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전광판을 통해 교통사고 및 정체구간 등의 정보도 운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연휴기간동안 도로이용에 불편이 있을 경우 도로불편 이용신고 전화를

(080-0482-000)로 연락하면 신속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익산국토청은 특별교통대책 기간 전 전남·북 관내 일반국도와 공사 현장에 대한 사전점검을 통해 도로파손, 교통안전시설 등의 미비구간에 대한 정비를 완료했다.

또한, 올해에 준공한 전남 무안의 송정-마산, 전남 장흥의 용산-장흥, 전남 해남의 화산-평호 건설공사 구간과 일부 구간을 조기 개통한 전북 정읍의 정읍-신태인 2공구와 전북 순창의 담양-순창 구간의 국도를 이용하면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고향을

다녀갈 수 있다.

익산국토청은 21일 오전에는 여산휴게소에서 유관기관과 함께 고향을 찾는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교통법규 준수 등 안전운전을 당부하는 캠페인도 전개한다.

캠페인에는 익산국토청과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등이 참여한다.

한편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금년 추석에는 귀성은 지난해에 비해 훨씬 여유로운 것으로 예상되나 귀경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정체가 예상된다.

/익산=우병희기자

군산시, 명절 연휴기간 120생활민원 종합상황실 운영

8개 분야 100여명 구성

군산시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시민과 귀성객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해 안전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120생활민원 종합상황실'을 편성해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시에서는 짧은 연휴 기간 동안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불편 해소와 안전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120생활민원 종합상황실은 도로, 교통, 수도, 하수, 청소, 보건, 환경, 식품 등 8개 분야 100여명으로 구성된 비상대책반을 편성해 ▲도로 파손 ▲불법주차자 차량 지도 ▲상하수도 건

검보수 ▲쓰레기 처리 등을 상시 점검하여 연휴기간 동안 행정공백을 사전에 차단하고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일반전화 120, 핸드폰 063-120으로 민원을 접수하게 되면 종합상황실 근무자가 긴급 상황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은 물론 관광지 및 생활 편의시설(병원, 보건진료소, 약국, 음식점 등) 등에 대한 생활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김임준 군산시장은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군산을 방문하는 관광객과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 시민들이 모두 편안하고 안전하게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군산=김정훈기자

군산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 내년도 생활임금액 결정

시간당 9018원으로 정부 결정 108% 수준

군산시는 최근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19년 생활임금액을 시간당 9,018원으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결정한 최저임금 8,350원의 108% 수준으로 월 급여로 환산하면 188만4,762원이며, 최저임금(8,350원)을 적용한 금액보다 시간당 668원, 월 13만9,612원을 더 받게 된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 사회적 약자인 기간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최저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시에서는 2016년 생활임금 조제 제정을 시작으로 2017년은 7,050원, 2018년은 8,130원으로 생활임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군산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이번 생활임금액의 결정에 따라 2019년 군산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게 되고 적용 대상자는 월 평균 200여명이며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아 채용되는 근로자는 최저임금 적용대상자가 생활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승복 부시장은 "군산시의 재정여건 및 근로자의 사기 진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19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며 "군산시 생활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전북도 농업기술원, 장미 연종 고품질 안정생산기반 구축

전북농업기술원(원장 김하주)에서는 장미 연종 고품질 안정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새로운 접목묘 생산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부정 청탁금지법 시행과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라 화훼류 소비가 감소함에 따라 화훼산업이 침체되고 우리나라 주 수출시장인 일본의 엔화 약세와 케냐, 에티오피아 등 신흥 화훼 수출국의 일본 내 경쟁이 심화되면서 국산 화훼 수출이 감소했다.

이러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전북농업기술원은 농촌진흥청(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수산대학, 경북농업기술원 및 베스트팜(종묘업체)과 공동으로 국산 수출 장미와 국화의 연종 안정적 생산 기술 개발을 위해 우수 신종종조기 보급 확대를 위해 3년간 7억 5천만원 연구비를 확보,

우량 건전묘 생산 기술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북농업기술원에서는 내탈브라이어를 대목으로 건전한 장미 우량 접목묘 생산 효율 증진을 위한 연구로 접목용 자재와 생장조절물질 선별 및 안전한 육묘 기술을 개발한다.

내탈브라이어 접목묘를 전 세계 장미 생산현장의 60~70%가 이용하고 있으며, 장미 생산성이 우수하고 뿌리 혹병에도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농업기술원 원예산업과 정동훈 연구사는 "우량한 장미 접목묘 생산 기술을 체계화하고 대규모 생산 현장에 건전묘 실증재배를 통하여 장미 연종 고품질 생산과 수출 증대를 통해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익산=우병희기자

익산시, 아동안전지킴이 어르신들과 오찬 간담회

익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과장 김근필)는 지난 17일, 통학로·놀이터·공원 주변 등지에서 아동보호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아동안전지킴이 어르신 등 총 96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익산 모험동 한 식당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는 금년 3월부터 근무하는 아동안전지킴이 어르신분들의 활동에 대한 노고 격려를 위한 자리로 예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시기적절 및 운영 내실화를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한편 간담화와 병행해서 최근 발생

이 증가하고 있는 보이스피싱에 대해 수요자 맞춤형 예방교육을 실시, 자신은 물론 근무시 적극 홍보하도록 교양했다.

현재 익산경찰서에는 92명의 아동안전지킴이가 활동하고 있으며 8개 지구대·파출소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및 공원 등지에 배치 금년 12월까지 근무할 예정이다.

김근필 여성청소년과장은 "앞으로도 아동안전지킴이 어르신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자긍심을 갖고 아동안전보호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익산=우병희 기자

군산시, 가천 그림그리기 대회 개최

초중고 학생들 대상 '은파호수공원 물빛다리광장' 서

행복도시 군산시가 전북도와 가천문화재단과 함께 유아 및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4회 가천그림그리기 대회를 개최한다.



전북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소중함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된 제4회 가천그림그리기 대회는 다음달 20일 '군산 은파호수공원 물빛다리광장'에서 열린다.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에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19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가천문화재단 홈페이지(www.gachon.or.kr)를 이용하거나 가천그림그리기 대회 운영위원회 사무국(☎731-2186)으로 신청하면 된다.

대회에서 사용되는 도화지는 저학년(유치부~초등학교 3학년)과 고학년(초등학교 4학년~)으로 구분해 당일 현장에서 주최 측이 제공하며 도화지 외에 물감, 붓, 크레파스, 돛자리, 간식 등 필요한 물품은 개인이 준비하면 된다.

행사 당일 오전 시에는 1주일 연기할 예정이며 우천이나 비로 인한 대회 소식과 자세한 대회요강은 가천문화재단 홈페이지(www.gacho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상자는 각 부문별(유·초·중·고 구분, 대상·금상·은상·동상·입선 선정)로 심사를 거쳐 11월 14일경에 발표할 예정이며, 각 부문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함께 고등학생 100만원, 중학생 50만원, 초등학생 30만원, 유치원생 10만원의 부상을 수여하는 등 약 350명의 수상자에게 총 3천만원 상당의 부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한편 가천그림그리기 대회는 군산대야초등학교 선배인 가천길재단 이길여 회장이 2015년 1회 대회를 시작으로 매년 학생들과 가족 등 1만여 명이 이상이 참가하는 도내 최고의 그림 그리기 축제로 발전해 참가범위를 유치부까지 확대한 지난해 대회에는 약 1만2천여명이 참가해 큰 성과를 이뤘다.

/군산=김정훈기자

이번 생활임금액의 결정에 따라 2019년 군산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게 되고 적용 대상자는 월 평균 200여명이며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아 채용되는 근로자는 최저임금 적용대상자가 생활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승복 부시장은 "군산시의 재정여건 및 근로자의 사기 진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19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며 "군산시 생활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 규제혁신 과제 발굴 보고회 열어

군산시(시장 김임준)는 정부정책에 맞는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2018 규제혁신 과제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8일 이승복 부시장 주재로 열린 보고회에는 40여명의 관련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정책방향 및 최근 동향 보고를 시작으로 주요 실적 및 우수사례 소개, 부서별 발굴과제 보고 순으로 진행됐으며 부서 간 질의응답 등 과제별 쟁점사항에 대한 열띤 토의가 이어졌다.

주요 발굴과제로는 맥류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주세법 개정, 새만금산업단지 입주제한업종 완화, 금강하구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구역 해제, 전기사업별 개별 인허가 인제조항 신설 및 취득세 계약 해제 인정범위 확대 등이며 유형별로는 분권형 규제 1건, 테마 및 민생규제 9건, 네거티브 규제 1건, 기타 3건 등 총 14개 과제가 발굴됐다.

시에서는 이번 발굴 과제에 대한 토론 및 질의응답을 통해 나온 의견을 검토하고 자료 보완 등을 거쳐 도 및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며 지역발전의 효과가 큰 신산업 분야와 어려운 지역경제를 감안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민생규제에 대한 규제혁신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승복 부시장은 "사회변화에 맞추어 규제도 변화해야 하며 현장 중심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는 과제발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쏘옥 뺄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